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등록 제53호 [비매출] 등록번호 : 서울 라 09006 발행일 : 2005년 7월 1일 발행인 : 장민기 편집인 : 장민기
간이개발연구원(KHIHDI) 주소 : 136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층 T. 2203 3500(☎) F. 2203 1974 www.khihdi.or.kr 디자인 : 디자인코드 www.cod2.com 인쇄 : (주)동명인쇄 T. 462 6323

큰 회사보다 좋은 회사로의 성장을 추구하는 유한정신으로 기업의 사회환원 책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

머릿글 소설가 김정빈

7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주한 이스라엘 대사 우지 마노르

커버스토리 (주)유한양행 사장 차중근

지자체특강 상지대 총장 김성훈

남해안어촌관광축제 / 리더십이야기

특별대담 월간 디플로머시 임덕규 회장-인도 만모한 싱 수상

회원&연구원소식 / 남미시찰단 / 발행인편지

골프칼럼 / 조순칼럼

표지인물 차중근 (주)유한양행 사장 / 사진 오경근 원장

2005 July

7



「내일에 대한 믿음으로 희망이 쑥쑥 자라는 365일!」



더 크게
더 든든하게
고객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일 행복하기를...

● 자동차보험 ● 운전자상해보험 ● 주택/가정생활보험 ● 여행레저생활보험 ● 배상책임보험 ● 적해보험 ● e-business 보험 ● 화재보험 ● 각종기업전용보험

정직한 삶에 평화가 깃든다

김정빈 소설가

광 주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백모 군은 지난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 군을 폭행했다. 그 때문에 경찰서에 불려갔지만 백모군은 사실을 전면 부인함으로써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 백모군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어머니에게 자기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를 안 어머니는 이를 뒤인 9일 편지와 함께 아들들을 경찰서로 돌려보내면서 엄마의 심정을 담은 편지를 동봉하였다. 그 편지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직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교훈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세요."(조선일보, 2005년 6월 11일자)

그 어머니는 훌륭했다. 요즘 사람으로서는,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훌륭했다. 첫 번째로는 남에게 훌륭했고(모범), 두 번째로는 자식에게 훌륭했으며(교육),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게 훌륭했다(정직). 이 중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따지자면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가 될 것이다.

사람에게는 타고난 순수한 마음이 있다. 그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은 매우 평화롭고 고귀한 느낌을 갖는다. 정직한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이다. 정직은 맑고 깨끗하고 바르고 옹고 텃텃한 정신이고, 그런 정신이 살아 있지 않는 한 사람은 남의 모범이 될 수 없고, 자식을 가르칠 수 없고,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순수하지 않은 마음을 일으킬 때도 있다. 그때 마음은 어둡고 답답한 상태로 떨어져 평화를 잃게 된다. 그 상태는 맨 처음 자기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며(어머니),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아들), 세 번째로는 세상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경찰, 신문을 읽는 독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사람은 고독한 존재다. 사람은 배타적인 단독자로 태어나고, 단독자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 즉, 육체적·경제적·정신적·영적인 문제를 모두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그 같은 부담은 때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로 우리를 압도해 오기도 한다. 그 때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된다. 정직과 순수로써 직진하여 돌파하는 첫 번째 길과, 부정직과 불순으로써 우회하여 피해 가는 두 번째 길이 그것이다.

삶이 투쟁이라면 그 투쟁의 가장 중요한 전장(戰場)은 정직과 부정직, 순수와 불순이 다투는 마음속의 그 싸움터일 것이다. 그 싸움에서 패배한 다음의 모든 승리는 사실 무용한 것이다. 부정직에게 항복한 다음 설령 그가 세상에 나가 아무리 큰 승리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사실 승리는 근본적으로는 패배한 승리일 뿐이다.

부정직에 패배한 사람은 자신의 패배를 평생 동안 기억하게 마련이다. 그것을 잊는 방법은 없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자신이 불순했었다는 기억만은 잊혀지지 않도록 마음의 법칙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의 마음을 바탕으로부터 오염시키고, 그 오염이 평화와 행복을 앗아간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원하며, 사실 그가 거짓말로써 달성하려고 했던 최초의 목표 또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부정직을 행함으로써 수단이 목표를 배반하는 행위를 한 셈이 된다.

앞에서 예로 든 어머니는 정직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직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 자체'는 아니다. 단지 '해결의 기초'를 이룰 뿐이다. 그 기초를 바탕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거쳐 얻어낸 방법을 끈기있게 추진할 때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삶과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는 일, 그것은 대체로 불리한 모습을 띠고 나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끝까지 추적해 보면 부정직의 결말은 늘 어두움이다. 그에 비해 정직의 길은 밝음·평화·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 온갖 비리로 얼룩진 우리 사회.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치·경제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내적인 정직, 그 정직을 기초로 삼는 문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일 것이다. **人間**



김정빈 소설가

1953년 생 / 현대문학 추천 /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 / 계몽사 어린이문학상 수상 / 1985년 당해년도 최대의 베스트셀러(소설 <단(丹)>) / <성자들의 마음>, <마음을 다스리는 법>,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9가지 원리>, <리더의 아침을 여는 책>, <승어>, <피천득,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 <민화 논어>(대만에서 번역 출판됨) 등 30여 권의 저작이 있음.

에너지산업 환경변화와 한전의 新성장 및 세계화 전략

1409회 7월 7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7월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 프로그램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 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추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유가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에너지소비의 90%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재벌기업 못지 않은 외형을 지니고 있는 한전은 2004년 한준호 사장이 부임하면서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윤리경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요체라는 인식으로 취임 이후 무엇보다 윤리경영과 열린경영을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그 결과 수년째 최하위였던 부패방지위원회의 공기업 청렴도부문에서 4위로 뛰어올랐으며, 공기업만족도 6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다. 또한 57년만에 북한에 전기를 공급하는가 하면 '국민기업' 이미지를 인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기업메세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전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상향조정해 한 사장의 경영성과를 입증해주고 있다. 한전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2015년까지 세계최고의 글로벌 종합에너지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업구조, 경영시스템, 영업, 재무, 인력 등 5개 사업 부문별로 중점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공직생활 30여년 중 에너지분야에서만 20년 이상 근무한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초빙하여 국민기업으로 재도약하고 있는 한전의 윤리경영과 세계화 전략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서울대 법과대 졸업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경희대 행정학 박사
- 제10회 행정고시 합격
- 상공부 행정사무관
- 동력자원부 자원개발국장, 공보관
- 동력자원부 석유가스국장
- 상공자원부 석유가스국장

자원정책국장

-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장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
 - 중소기업청 청장
 -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 (상훈) 황조근정훈장

우향청심원에서 비타500까지 최수부 회장의 독심경영

1410회 7월 14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최수부 광동제약(주) 회장

광동제약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최 씨 고집'이다. '고집'은 합리적이기 보다 주관적인 의사결정으로 집착한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여 뜻을 이룬다는 의미를 지닌다.

IMF 당시 최종 부도위기가까직 직면했던 광동제약은 2001년 '비타500'이라는 마시는 비타민 음료를 출시해 대역전에 성공하면서 작년에는 1963년 창사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현재 비타500은 비타민C 드링크 시장을 처음으로 개척했을 뿐 아니라 30여개의 유사제품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향청심원으로 대변되던 회사이미지도 신세대 드링크제 전문회사로 탈바꿈하였다. 우향청심원에서 비타500까지 광동제약의 성공 뒤에는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제약사업 외길을 걸어온 창업주 최수부 회장의 '독심'이 있었다. 최 회장의 독심경영은 칠순의 나이에 불구하고 우향청심원의 약재를 직접 고르는 열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신용과 성실함, 도전정신으로 영업사원에서 제약사 회장에까지 오른 최수부 광동제약 회장을 초빙하여 독심경영으로 일군 광동제약의 성공스토리를 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고려대 경영대학원 수료
-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
- 1963년 광동제약사 창업
- 1973년 광동제약(주) 설립

<상훈>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 올해의 환경기업대상, 국민훈장무련장, 노사협력우량기업, 모범납세자표창, 남녀고용평등우수상, 한국 전문경영인(CEO)대상, 동암 약의 상 대상 외

블루오션전략 - 가치혁신과 신시장 창조

1411회 7월 21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권영설 환경 가치혁신연구소 소장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영역에서 이기려 하기보다는 경쟁이 필요없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자는 가치혁신(Value Innovation)론인 '블루오션전략(Blue Ocean Strategy)'이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김위찬 프랑수아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동료인 르네 마보안 교수와 함께 쓴 단행본 <블루오션전략>은 한국이 경제위기 이후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저성장의 뒷에 걸린 한국이 도입하기에 최적의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는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 맞물려 가치혁신은 한국 경제계의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권영설 소장이 담당하는 환경 가치혁신연구소가 지난 1년여간 '국가혁신 프로젝트 : 가치혁신 시대를 열자'라는 특별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가치혁신 이론을 도입하려는 기업과 정부부처가 하나 둘 늘어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권영설 환경 가치혁신연구소 소장을 초빙하여 블루오션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경제계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가치혁신과 신시장 개척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연세대 철학과 졸업
- 연세대 철학과 대학원
- 美 일리노이주립대 SPIM과정 연수
- 美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문화부 기자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산업부 기자
- 환경닷컴 주미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경영전문기자
- 환경STYLE 편집장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전문위원

<저서> 직장인을 위한 변명, 직장인의 경영연습, 경영이란 무엇인가(공역)

한국 규제개혁의 현황과 문제점

1412회 7월 28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박종규 KSS해운 고문 /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기업활동이 활력을 띠려면 무엇보다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규제의 족쇄를 차고서는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의 철폐가 시급하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오랜 침체기를 생각한다면 더욱 자명해진다.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는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되어 총 1만 2000여건이던 행정규제가 6000여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규제 건수는 7900여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규제개혁에 대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기업이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한쪽에서는 규제를 없앤다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 새로운 규제가 가중되고, 각종 이익집단의 이해타산이 개입되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풀이된다.

참여정부도 올 초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에 따라 1000여건의 정부규제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회복을 우선시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가늠해볼 시점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작년 3월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취임한 박종규 KSS해운 고문을 초빙하여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현황을 알아보고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대한해운공사 조선과장
- KSS해운 사장, 회장
- 경실련중앙위원회 의장, 고문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
- KT&G 비상임 이사
- 행정개혁시민연합회

- 공동대표, 고문
- 해양수산부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투명성포럼 공동대표, 고문
- 통일경제연구협회 이사장
- 바른경제동인회 이사장

<상훈> 은탑산업훈장, 제4회 일가상, 제4회 좋은한 국인상

<저서>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은 지킨다

격변하는 중동정세와 이스라엘의 미래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우지 마노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

"굿모닝 샬롬"

제가 오늘 샬롬이란 단어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렸다. 샬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식 인사로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그리고 악수를 하는 표현이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평화, 평안이라는 의미인데, 샬롬이라는 단어로 인사하면 인사함과 동시에 전 세계 모든 곳에 평화와 평안을 기원한다는 의미도 갖게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이어살렘'이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 방문객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평화의 메시지를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1404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6월 2일(목)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그 해당 주제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실과 배경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중동지도를 보여주려고 한다. 중동지역 그리고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면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등의 국가들이 있다. 우리가 국가간의 관계를 논할 때 두 국가간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있다면 국가의 면적이나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동지역으로 넘어오면 상황이 좀 다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동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면적이 굉장히 작다. 인구는 약 670만 명이다. 아랍권 국가들의 인구는 1억 5천만 명을 상회한다.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이 관계가 좋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반세기 전서부터 중동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을 했는데 건국 직후 아랍국가들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의 목표는 이스라엘 국가를 파괴하고 중동전체를 아랍국가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들은 전쟁을 하면 쉽게 이스라엘을 파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랍국가들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이용했다.

첫 번째 방법은 군사적인 방법 즉 무력을 동원했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래로 아랍국가들과 이스라엘간에 다섯 차례의 큰 전쟁이 있었다. 이 전쟁 이외에도 수많은 우발사태와 군사적 충돌,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테러공격이 있었다. 전 세계 역사적으로 일어난 전쟁들은 특정한 이슈를 둘러싼 전쟁인 반면에 중동지역의 전쟁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 왜냐하면 아랍국가들의 유일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는 것이었다. 국가나 영토, 국민을 둘러싼 문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랍국가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에 이스라엘을 파괴한다는 목적으로 전쟁을 감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시도 하였다. 국가간의 경제 그리고 교역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신생국가에 있어서는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건국 초기인 1950년대에 긴밀한 교역관계를 시도했었는데 아랍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모든 상업적 그리고 무역과 교역차원의 교류를 거부하면서 보이콧을 실행했다. 아랍지역의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경제와 시장은 규모 면에서 훨씬 더 뒤진다. 그런데 아랍국가들이 다른 국가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당신이 이스라엘에 수출을 하



거나 교역을 하면 우리도 당신의 상품을 보이콧하겠다'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두 가지 유명한 사례를 소개 드리고자 한다. 일본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는 수년간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에 수출해 왔다. 아랍국가들이 도요타 자동차가 한 대라도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도요타의 아랍국가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도요타가 이스라엘 시장에만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두 번째로 미국 코카콜라회사도 같은 경우인데,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에 한 병이라도 코카콜라를 수출하면 아랍국가에 코카콜라를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여 한 병도 수출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했다. 아랍국가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려 들었기 때문에 세계 무대에서도 이런 시도를 해왔다. 그래서 아랍국가들은 국제 결의안이나 국제 여러 가지 사항과 분야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고 상품과 비슷한 협박을 하였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외교를 하고 수교를 하면 그 나라와 외교관계를 분리시키고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하여 많은 나라들이 아랍의 22개 국가와 한 개의 이스라엘 국가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단순한 계산을 하게 만들었다. 한국에 해당하는 사례를 한 가지 말하겠다. 2002년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여기에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경기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



했던 부산아시아게임에서 이스라엘만이 제외를 당했다.

이집트 등과 평화조약 체결하기 시작해 아랍국가들의 태도가 변하기를 희망

아랍권 국가들의 삼십년간의 전쟁과 갈등 끝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먼저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요르단과도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체결했던 평화조약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이집트와의 평화조약이 중요성을 띠는 이유는 1979년에 최초로 아랍권 국가들 중 가장 규모가 큰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에 조인했다는 것이다. 이 의미는 이제 이집트가 중동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현재 이집트, 요르단, 마우리타니아 등 아랍권 3개 국가와 완전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완전한 수교관계는 아니지만 모로코, 튀니지와 걸프연안에 있는 아랍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고 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접촉과 교류를 완전히 거부하는 아랍국가들이 있지만 이런 태도들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라크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사담 후세인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이었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전혀 숨김없이 표현하던 인물이다. 1991년 제1차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는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상의 피해만 있었다. 이라크 전쟁이 종결되었으니 이 국가와의 상황도 바뀌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스라엘을 강력히 거부하던 그런 정부는 이라크에 더 이상 있지 않다. 그 다음으로는 한반도 특히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리겠다. 이스라엘은 북한과 수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북한사이에는 직접적인 갈등과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심히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무기와 무기기술이 아랍국가

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무기와 기술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걱정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한 장의 종이를 어떻게 나누어 가지는가 하는 것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이 지역의 민족 분포를 보면 유대인이 있고 팔레스타인 아랍계 민족이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평화적인 공존이 힘들어졌는데 그 이유는 각각의 민족이 아까 보여드렸던 지역을 차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대한 권한은 양 민족 모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아랍권에서는 우리가 수년간 여기에 거주하였기에 우리나라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 민족도 이 지역은 우리 땅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상생활의 단순한 예로 비교해 보겠다. 여기 이 종이가 나는 나의 것이라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첫 번째 방법은 양쪽이 싸워서 이긴 쪽이 차지하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을 군사적인 수단이나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그래서 단순한 논리의 해법이라고 한다면 반씩 나누어 가지면 되지 않겠냐고 할 것이다. 종잇장을 가지고 비유를 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 양 민족 즉,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들 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UN에 회부하였다. 그래서 UN에 위원회가 채택한 해법이 아까 제시했던 단순 해법 즉, 토막토막 나누어서 가지라는 것이다. 이러면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 이것이 맞는 해법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서 UN의 결정에 따라서 영토를 나누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해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땅이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 전체 지역이 이스라엘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UN이 지정한 이스라엘 영토의 50%가 황폐한 사막지역이다. 그러나 평화적인 해법을 원하였기에 이스라엘은 UN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랍국가와 팔레스타인은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임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팔레스타인과 아직 이 지역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지 않았기에 당시와 같은 문제가 현재도 존재한다.

평화적 관계 성립 안 되면 양국 모두가 고통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합의를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모두들 이

지역에서 사는 국가이고 이웃국가이기에 다른 해법이 없기 때문이다. 마치 한 건물에서 1층과 2층을 나누어서 차지하고 있는 격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달리 정착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해결점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수 차례 테러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무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요즘의 이슈는 테러를 하지 말고 협상테이블로 나오라는 것이다. 계속 테러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논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양국 모두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에서 중요시하는 분야 중 하나인 교육에 대하여 이야기하겠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진보·진전을 이룰 수 있고 또 이것이 달성되어야만 전 세계적인 번영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교육이 중시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천연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과의 공통점이기도 한데, 이스라엘과 한국의 유일한 자원이라고 한다면 인적자원이다. 그래서 이러한 소중한 자원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한국이 과학기술, IT기술에 있어서 선두부분에 위치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야에서 선두부분에 있기 위해서는 천연자원이 아닌 인적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앞에서 중동상황과 중동국가들과의 적대적 관계에 대하여 설명했는데 영토, 인구, 국가수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따라잡을 수 없다. 그래서 아랍 국가들과 경쟁하는 방법은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국 가장 질이 높은 인재들을 양성하

기로 결정해서 그만큼 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거의 2000년 가까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흩어져 살았는데, 19세기말부터 전 세계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수세기 동안 외국에서 거주를 했기에 외국의 관습과 의상, 식습관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을 단일민족으로 형성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국민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육을 강조해 왔던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례를 말하겠다. 이스라엘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8세가 되는데 이 때 남녀 모두가 군복무를 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사항이지만 대학에 진학하거나 이스라엘의 고등교육기간에 가서 배움을 얻고자 한다면 학업을 마친 후 군복무를 하게 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업을 마치지 못하거나 더 배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군인을 위해서 군내에서도 특수 프로그램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교육이라는 것이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는 군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모든 프로그램과 세미나가 노인인구를 위해서도 존재한다. 말하자면 평생 교육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것도 선조들이 물려준 하나의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노력

유대인의 특별한 역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싶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유대인 인구가 1,800만명이었는데 전쟁 후 1,20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600만명의 유대인이 독일 나치군에 의해 살해당하고 학살당한 것이다. 만약 제2차 세계대전이 지속되었던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다면 본국으로 돌아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귀환의 법'이라는 것이다. 이 귀환의 법에 따르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유대인이던 간에 본국에 돌아오고자 한다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라가 없기에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스라엘은 주변의 아랍국가와 수많은 적들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렇게 생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바로 2차 세계대전 때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각자가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살롬" 人間



큰 회사보다 좋은 회사로의 성장을 추구하는 유한정신으로 기업의 사회환원 책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

차중근 (주)유한양행 사장



사진 오경근 VERONICA CASS KOREA ACADEMY원장

사회환원, 윤리경영, 투명경영, 노사화합 등은 현대 경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성장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이들 요소를 충족시키려 노력하지만 경영이익이 우선시 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기업의 현주소이다.

그런데故 유일한 박사가 1926년 설립한 유한양행은 80년 가까이 이어오는 역사 속에 설립자의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고 기업의 이윤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성실히 지켜오는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하나로 전문경영인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유한의 차중근 사장은 74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2003년 사장에 취임한 케이스로 '준비된 인재에게 경영을 맡기는 유한의 경영체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큰 회사'보다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자 경영철학인 차 사장은 현장중시, 실천중시, 인재중시를 통한 신뢰경영 구축을 가장 핵심적인 경영방침으로 삼는 전문경영인이다.

올해 신약개발과 함께 기흥에 중앙연구소를 신축하고 오창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적극적 R&D 투자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차중근 사장을 만나 설립자의 정신을 계승하는 유한의 독특한 전통과 평생을 유한에 몸담고 있는 그의 경영스토리를 들어보기로 한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차중근 사장

1946년 생 / 동국대 상학과 졸업 /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美 Barrington대 MBA / '74 유한양행 입사 / 기획실 부장 / 기획관리실 이사 / 기획관리실장 겸 재정담당 이사 / 총무담당 상무 / 전무이사(기획관리본부장) / 부사장 / 유한킴벌리 이사 / 한국안센 이사 / 유한크로락스 이사 / 한국성장회사협의회 이사

故 유일한 박사가 작고하신 지 30년이 넘었지만 유한양행의 사회적경영은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회사소개와 함께 유일한 박사의 기업이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한양행은故 유일한 박사께서 "건강한 국민만이 잃었던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1926년 설립한 민족기업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유일한 박사는 우리나라 기업사에 큰 이정표를 세우신 분이죠. 그 뜻



▶ 유한양행 사옥

에 따라 유한은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창업이념으로 '가장 좋은 상품의 생산, 성실한 납세,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기업이념을 성실히 지켜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경영이념 중 하나인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은 기업에서 얻어진 이익은 그 기업을 키운 사회에 되돌려져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현이죠. 이는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고 단지 그 관리만을 기업인이 할 뿐'이라는 창업자의 신념에서 출발해 기업은 사회적 공기(公器)임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유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이 지속성을 갖도록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유한의 사회환원 시스템은 주주구성과 전문경영인체제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요. 우선 유한양행은 주주구성상 공익법인인 유한재단과 유한학원이 최대주주입니다. 유한재단과 유한학원에 대해 유한은 업계 최고의 배당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양 기관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죠. 또한 유한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해 투명성과 윤리성,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가능케 한 관리 시스템과 조직의 자율성과 통제, 공동체 문화정착이라는 기업의 조직 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한의 핵심가치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면서 경영혁신을 통해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성장과 효율화를 통해 핵심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제약업계 정상의 자리를 누리면서도 외형성장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한은 무엇보다도 고객만족을 이룰 수 있는 제품개발과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9년간 변함없이 보건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사회에 봉사한다는 확고한 경영이념 하에 의약품부문을 핵심역량으로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빅 컴퍼니'보다는 '굿 컴퍼니'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유한의 전략이죠.

유일한 박사께서는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닌 사회의 소유'라는 의식을 철저히 지켜왔어요. 이에 따라 유한은 유일한 박사 영면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문경영인에 의한 내실 중시의 경영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기업주의 독단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사 내부에서 성장해 온 '준비된 인재'에게 경영을 맡기는 선진적 경영환경을 조성해 온 것이죠. 기업의 수명이 일반적으로 30년에 불과하다는 경영학 이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한의 전문경영체제는 우량장수기업으로 발전해 가는데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한은 창업 이후 다른 사업영역에 눈을 돌려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계약입국'이라는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제약 외길을 걸어 왔으며, 이는 기업이윤을 사회에 되돌려야 한다는 유한의 기업이념과 맞물려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해주었습니다.

유한양행은 창업이래 노사분규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노사화합의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지요.

유일한 박사께서는 생전에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기업활동을 통한 하나의 공동운명체'라는 기업관을 견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한은 오래 전부터 종업원 복지나 처우 등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국내 최초의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하는 등 종업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어요. 따라서 유한의 노사관계는 79년의 기업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생을 전제로 한 상호의존적 공동운명체의 관계로 정립될 수 있었죠.

이러한 공동운명체적 정신은 자연히 정직한 기업활동, 건전한 기업윤리,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경영자와 종업원에 대한 각별한 신뢰의식 등을 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모든 문제는 전 구성원 공동의 문제로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인식 하에 분기별 실적보고회, 노사합동연수회, 사원운영위원회, CEO의 E-mail 쓰기 등 다양한 사내 대화채널을 운영, 노사 공동운명체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의 모든 종업원들은 사용자와 노동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노동자라는 의미로 '노노(勞勞)관계'라고 부릅니다.



▶ 故 유일한 박사

유한양행은 창업이래 노사분규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노사화합의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지요.

유일한 박사께서는 생전에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기업활동을 통한 하나의 공동운명체'라는 기업관을 견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한은 오래 전부터 종업원 복지나 처우 등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국내 최초의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하는 등 종업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어요. 따라서 유한의 노사관계는 79년의 기업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생을 전제로 한 상호의존적 공동운명체의 관계로 정립될 수 있었죠.



▶ 노사협의회-노조원들과 대화하고 있는 차중근 사장



▶ 유한양행 제14회 노사합동연수회

이러한 공동운명체적 정신은 자연히 정직한 기업활동, 건전한 기업윤리,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경영자와 종업원에 대한 각별한 신뢰의식 등을 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모든 문제는 전 구성원 공동의 문제로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인식 하에 분기별 실적보고회, 노사합동연수회, 사원운영위원회, CEO의 E-mail 쓰기 등 다양한 사내 대화채널을 운영, 노사 공동운명체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의 모든 종업원들은 사용자와 노동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노동자라는 의미로 '노노(勞勞)관계'라고 부릅니다.

유한양행은 소유와 경영을 철저히 분리, 36년째 전문경영인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투명경영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우리 기업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업에 대한 신뢰는 기업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윤리는 '개인의 신념'처럼 독단적이어서는 안되며, '종교적 신념'처럼 합이될 수 없는 절대 원칙도 아닙니다. 기업윤리는 적용의 원리라 생각해요. 즉,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최대 다수가 공감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업의 경영시스템은 기업활동의 상호의존적 요소들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둘러싼 모든 요소 또는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관련된 조직·기술·거래·기업활동 목적·정책 등에 대해 무엇이 올바르고 공정한가를 조직구성원들에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리를 경영시스템에 접목시켜 보다 타당한 윤리적 기준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여 그 결과를 기업문화로 확대 적용시켜야 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가운데 신약개발과 연구개발은 중요한 과제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다국적 제약사들이 자금력과 연구개발로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과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기에는 장벽이 많아요. 그래서 '리치마켓'을 활용한 연구개발이 국내기업들에게 필요합니다. 특히가 만료된 제품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바로 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물전달체계(DDS)기술이나 제형을 바꿔서 개량된 신약을 만드는 것이 우리 기술력에 적합하다고 봐요. 또한 신약의 경우 전임상단계나 임상단계에서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유한은 기업이념의 하나로 '가장 좋은 상품의 생산'을 꼽고 있어요. 이에 따라 유한은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강화하고 있죠. 그 중 소화성 궤양치료제 레바넥스는 현재 국내에서 일부 적응증(適應症)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신약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내년 중에 상품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다국적기업으로 라이선싱 아웃을 추진 중에 있어요. 특히 연구공간 확장과 함께 연구개발 투자강화, 연구인력의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등 세계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

하기 위해 용인시 기흥에 중앙연구소를 신축하고, 충북 오창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적극적인 R&D 투자 또한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74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지금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 동안 유한의 창업이념에 많은 영향을 받았겠지만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남다른 경영철학이 있으실텐데요.

기업은 결국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의 구성원들, 그리고 기업을 둘러싼 모든 관계 당사자들의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한 경영과제입니다. 그래서 기업활동에 있어 현장중시, 실천중시, 인재중시를 통한 신뢰경영구축을 가장 핵심적인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어요.

기업의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인재개발 등 사람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인재경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입사원 선발시 최종면접을 직접 보고 있는데 성품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 승진을 하기 위해 필수와 선택과목을 포함한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학점 이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기업발전 기반의 강화를 통해 기업 내부 구성원, 주주, 소비자, 언론 등 모든 내외부 관계자들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운명체적인 관계로 WIN-WIN할 수 있을 때 이른 바 '좋은 기업, 존경받는 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평사원에서 CEO까지 30여년의 세월 속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보람되거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을 79주년 창립기념일에 30주년 근속을 맞게 됩니다. 그만큼 제 삶의 큰 부분을 유한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89년 공장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당시 구 소련과의 경제협력에 의해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한양행도 30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소련에 수출할 기회를 맞았는데 수출납기가 촉박했어요. 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전 직원들과 함께 협심해서 약 4개월 동안 잔업과 야근을 했습니다. 당시 공장 시설이나 촉박했던 납기를 고려하면 달성이 어려운 과제였지만 유한의 신용을 지켜간다는 직원



▶ 2004년 유한양행 체육대회



▶ 생산현장을 방문한 차중근 사장, 작은사진은 개발중인 신약 레바넥스



▶ 유한 중앙연구소 신축조감도

모두의 의지, 그리고 눈앞에 닥친 난관을 새로운 사고의 전환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점은 지금까지 직업인으로서의 보람이자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장님은 2004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 43위에 오르는 등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유한양행의 대외평가에 대한 자랑 좀 해주시죠.

유한은 한국능률협회에서 조사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2004년과 2005년 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고, 2004년 초에는



▶ 직원들과 함께 판매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차중근 사장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에서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천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경영인 협회에서 주관

하는 2004년 대한민국 최고기업대상 제약부문 최고기업상을 수상하는 등 그간 크고 작은 수상경력과 함께 우수한 대외적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는 기업의 건전한 영리추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가는 유한의 경영시스템이 8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매우 정교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유한은 건전한 기업윤리 하에서 정도경영 등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하면서 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유한이 갖고 있는 유형자산보다 기업에 대한 신뢰도 등 무형자산의 가치가 훨씬 큰 회사로 자리매김하면서, 기업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발전과정 또한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는 무엇보다 고객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유한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장님은 2004년 5월 연구원의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통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인재의 중요성과 함께 D-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장님의 '인간개발'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특정부분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측면에서 '인간개발'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유한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토양을 다지고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결실을 거두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D-바이러스는 관리자가 되고 리더가 되면 직원들의 생각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라는 의미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가 목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으로 빚(Debt), 우울증(Depression), 음주(Drinking), 이혼(Divorce), 질병(Disease), 도박(Dice), 성격장애(Deviancy), 나태(Dalliause), 마약(Drugs), 동기부족(De-motivation),

부업(Double-Dipping), 망상(Delusions), 낙담(Dereliction), 불신(Distrust) 등의 요소에 직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자가 직원의 개인적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평소 사장님은 다독(多讀)을 하기로 유명하신데요. 사장님만의 독서방법과 기억에 남는 책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지식의 반감기'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얻은 지식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없다면 일정 시간 후에는 절반만 남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마저도 자꾸 잊혀진다는 말이지요. 그만큼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지속적인 자기계발은 필수불가결한 경쟁우위의 요소입니다. 특히 독서는 간접적이거나 타인의 지식이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통로이기에 자기계발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주로 경영관련 서적이거나 삶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서적을 읽는데 좋은 책이 있으면 관리자들이나 임원들에게 권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의 <실천하는 경영자>라는 책을 읽고 경영진이 갖춰야 할 덕목을 공유하고 싶어 임원들에게도 한 권씩 선물했어요. 6월 20일 창립 79주년 기념일을 맞아서는 책 웰치가 GE의 CEO로 재직하며 기업경영의 전 분야에 걸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담은 '하우 투 북(how to book)'이라 할 수 있는 <책 웰치, 위대한 승리(Winning)>와 실전에 강한 리더가 갖춰야 할 리더십의 기본과 핵심, 그리고 실천 지침서인 밥 애덤스의 <팀장 리더십>을 각각 회사의 임원 및 팀장들에게 선물하고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서는 저희 연구원의 회원으로서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조직과 사회의 기본이자 이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정도가 없다고 하는데 연구원은 지난 1975년부터 한

결같이 '인간개발'의 중요성을 부각해 왔기에, 그 노력은 매우 값지다고 할 수 있어요. 지난 30년간의 성과에 더해 앞으로도 세계를 움직이는 인재양성과 한국사회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기관으로 성장하시길 기대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개인의 목표관리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기업이 이야기하는 목표관리가 다르듯이 지금처럼 개인적인 문제와 함께 회사의 신입사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목표관리기법을 제시해줄 수 있는 교육분야가 개발되고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제1회 철원군 2005 열린학습관 지역지도자 육성과정 6월 7일(화)

친환경농업을 통한 한국농업의 희망찾기

김성훈 상지대 총장 / 전 농림부 장관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개강한 '2005 열린학습관 지역지도자 육성과정'은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의 잠재능력 개발,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 사회공동체의식 함양, 지역 인재양성 등을 통해 21C 시대적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철원군에서 의욕적으로 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연 2회로 기획하여 1차 교육에서는 전문강좌와 교양강좌 두 개 부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전문강좌는 철원군의 대표산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내용이며, 향후 열릴 교양강좌에서는 21C를 대비하는 지도자의 의식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강좌 등을 포함해 14명의 강사진이 참여하는 금번 교육과정은 공직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방교육의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6월 7일 "친환경농업을 통한 한국농업의 희망찾기"를 주제로 열린 개강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

제가 미국에서 막 공부를 끝내고 돌아온 교수 초창기 시절에 제 은사님이셨던 서울대 농과대학의 유달영 선생님이 어느 날 철원을 같이 가자고 해서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 때 YMCA에서 처음 양곡은행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YMCA에서 쌀을 모아서 농민들한테 빌려주면서 은행 같은 장리곡으로부터 농민의 고통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후로 양곡은행 자문교수로 YMCA 분들하고 매년 1년에 한번 이상은 교육을 했었습니다.

제가 유달영 선생으로부터 YMCA 철원 양곡은행 자문교수로 있을 때, 해마다 농민여러분에게 이제는 친환경, 유기농 쌀로 나아가야 우리가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시작된 1998년 농림부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농민의 날인 11월 10일날 대통령과 총리를 모시고 '친환경 유기농업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그 때 소비자들이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면, 외국에서 아무리 값싼 농산물과 쌀이 들어와도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찾아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와 좋은 물, 공기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

작년, 재작년에도 소비자들이 밥맛을 평가하면서 철원의 쌀을 1등으로 쳤습니다. 대한민국의 1등쌀을 생산해 내는 것이 바로 철원 농

민입니다. 그 시 작은 30년 전, 장리곡 등쌀에 못살아서 양곡은행으로 시작했지만, 철원의 농민들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 보고 친환경 유

기농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들도 친환경 유기농산물이 환경 생태계를 보존하고 소비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꺼이 비싼 값을 지불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 사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비만증, 당뇨병, 심장병 그리고 아토피라는 듣도 보도 못한 질병에 걸리는 것은 먹거리가 농약에 오염되어 있고 마시는 물이 오염되어 있고, 세계에서 공인된 나쁜 공기를 갖고 있는 도시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철원 농민들은 행복합니다. 비록 소득으로 따지면 서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할지는 몰라도 먹거리가 가장 안전하고 맛있고 그리고 좋



▶ 철원평야 1

은 공기와 맑은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기 농산물 먹고 좋은 물, 좋은 공기 마시면 남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여자들은 예뻐져요. 이것은 실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학계에서 정자조사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cc 안에 들어 있는 정자 수가 약 6천만~7천만 개가 있어야 정상인데 서울의 청년들은 4천만~5천만 개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정자들이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난자를 못 찾아가고 불임이 생깁니다. 반면에 유기농업 하고 있는 유기농민들, 매일 유기 농산물 드시고 좋은 공기, 좋은 물 드시는 농민들은 세계 공통으로 1억 2천만 개 이상의 건강한 정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불확실한 농업국제정세 속의 희망찾기
친환경 유기농업을 시작하자**

이제는 정부가 친환경 유기농법을 권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가 유기질 비료, 유기질 농약, 기술 등 친환경 유기농 자재를 농민들에게 싸게 공급해줘서 농민들이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유기농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후속으로 10년만에 쌀 재협상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쌀 재협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DDA협상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관세라도 제대로 매겨서 어느 정도 소비를 억제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관세를 대폭 낮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관세를 매겨도 우리가 경쟁하기 어려운 쌀 가격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농민 입장에서 보는 국제농업정세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주저앉아 죽을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길은 우리가 찾아나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살 길이 우리 철원의 선각자 농민들이 시작했던 친환경 유기농업이라는 것입니다. 철원이 가지고 있는 이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 넓은 평야, 청정 이미지를 살릴 농산물을 친환경 농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민이 결심하고 군, 도, 정부가 지원하는 체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가공과 유통을 직접 함으로써 소득을 올려라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살기 힘듭니다. 이제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유통까지 농민이 직접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쌀 전체 생산액이 8조원이 안 되는데, 이것을 가공하고 유통해서 팔 때는 두 배의 이익이 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것을 여기 철원에서부터 우리 농민들이 다시 조직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농협, 철원군, 농림부가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철원된장, 철원고추장, 철원 술 등 가공업과 유통업에서 농민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 알프스 산악지대를 작년 가을에 농민스물 다섯 분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악지대에 있



▶철원평야에서 모내기 체험을 하고있는 어린이들



▶전국 1등으로 평가받는 철원 오대쌀



▶철원평야 2



▶철원평야 3

는 농민들이 잘 살고 있을까 했는데 여기 농민들이 농산물을 파는 것을 보니까 가령, 술을 팔아도 술에 이롭고 없고 단지 생산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허가표시만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어요. 그래서 이 술을 만든 농장에 가보려고 했어요. 산골짜기에 있는 농장인데 주조공장을 둘러봤더니 한쪽 구석에 꼭 우리 전기보일러 같은 것을 두고, 거기에 포도를 익힌 다음에 집어넣으면 밤새 기계가 졸졸졸 술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 아니냐고 했더니 지역 기관장이 위생관리를 하고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판매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지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기관장의 관리와 보증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이익도 그냥 포도를 팔 때보다 세 배 많다고 합니다. 단, 기관장으로부터 위생관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팔게 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술을 만들어 팔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고추장, 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위생가공법 위반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농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할 때는 크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히려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장 짓고 대량생산하다가 안 팔려서 적자 투성이 되는 기존의 농협 가공방식 보다는 마을 단위로 몇몇 농민들이 옛날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은 위생검사를 해주면 되고, 식품 가공위생법에 걸린다고 하면 군의회에서 군내에서 거래하는 것만을 허락하겠다는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그 대신 판매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중앙정보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을 살릴 수 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WTO시대에서 살길은 중앙정부가 보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농협, 생산자 조직이 자구적인 목적으로 농민을 보조하고, 농산물 가격을 지원하고, 가공 판매하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만 역할을 해주면 우리 농민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우루과이협상이 끝난 95년에 농민들이랑 같이 유럽에 갔는데 유럽 농민들은 걱정이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정부가 가격 보조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전부 소득보조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오지에 살수록, 어려운 조건에서 농사를 지을수록 정부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줍니다. EU 농민 소득의 65%가 정부에 의한 보조입니다. 경관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방방곡곡에 골고루 살아줘서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되고, 생태계도 보존해주시 정부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WTO 체제하에서 중앙 정부는 값싸게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을 막아낼 길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군수나, 군의원, 농협 조합장, 축협 조합장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그 나라에 무엇이 들어와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거나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농민들 살길을 만들어 줍니다.

인터넷을 활용해 정보와 소득을 얻어라

세 번째로 우리 농민이 살길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철원에

도 정보화 마을이 다섯 개나 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만드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농민들에게도 자기가 생산한 제품, 씨뿌리는 과정, 수확 과정, 생산자 사진 등을 직접 보여주고 신뢰를 줘야 합니다. 물론 판매도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이용, 인터넷으로 5천만원에서 3억원 이상을 판매하는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1만명이 넘습니다. 자기 혼자 못하겠다면 마을이건 조합이건 통합해서 '몰'을 만드는 겁니다. 인터넷 안에는 모든 정보와 돈버는 방법, 오락과 교양이 있습니다.

도시의 웰빙욕구와 농산촌 어메니티를 살려라

네 번째는 철원만이 자랑할 수 있는 것, 철원만이 가능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철원은 넓은 평야, 좋은 산, 역사적 관광자원 등이 많습니다. 여기에 물 맑고 공기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합쳐서 도시에서는 웰빙이라고 하는데, 농촌에서는 '어메니티(amenity)'라고 합니다. 농촌다움, 어촌다움, 역사·문화·환경, 안심하고 먹을 먹거리, 물, 공기 등을 합쳐서 어메니티라고 합니다.

철원은 농산촌 어메니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DMZ가 있습니다. 이곳은 곧 대단한 관광지역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쌀 농사만 짓고 있는데, 여기에서 건강 관련 농산물을 생산하면 희소 가치 때문에라도 도시 사람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이제 행정과 농민이 합심해서 철원군을 오염시키지 않는 대신에 어메니티를 살려서 도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돈을 쓰고 가게 만드는 겁니다. 민박도 도시 사람들이 만든 펜션이 아니라 살던 집을 고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손님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집에서 먹게 하고, 떠날 때는 우리가 생산한 유기농산물을 사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시의 웰빙 욕구와 농산촌의 어메니티 공급이 맞아떨어져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통한 수요를 찾아라

다섯 번째는 북한을 잘 이용하면 소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간 경제관계 교류는 더욱 빈번해질텐데 철원에서도 북한을 통한 특별수요를 인식해서 소득원을 찾아야 합니다. 가령 장터를 하나 만들어서 북한에서 생산된 것과 우리가 생산한 것을 서로 판매하는 거죠. 저는 철원이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마지막 희망의 보루이고 가장 기대가 모아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 들으면서 동의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人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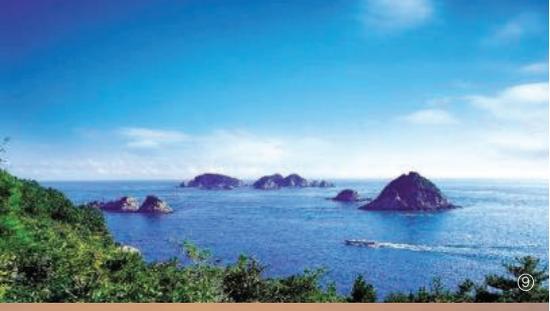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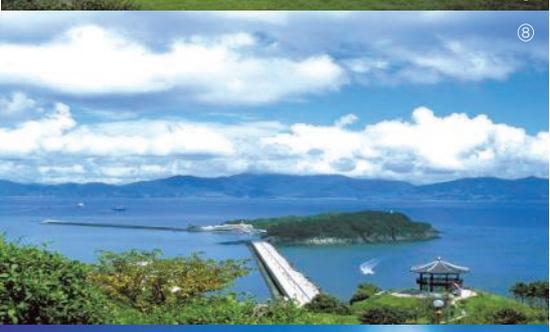


김성훈 총장

1939년 생 / 서울대 농경제학과 졸업 / 美 하와이대 농경제학 석·박사 / 국제식량농업기구(UN/FAO) 아·태평양지역 경제책임자 및 사무총장 / 중앙대 교수, 중국연구소장, 사회개발대학원장, 산업과학대학장, 제2캠퍼스 부총장 /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 동북아경제학회 회장 / 농림부 장관 / 상지대 총장, 경실련 공동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외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자동차로 떠나는 남해안어촌관광축제



인간개발연구원이 주관하고 해양수산부가 주최해 전국의 자가운전자들이 남해안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자동차로 떠나는 남해안 어촌관광축제」가 6월 4일~6일, 2박 3일 연휴 동안 남해안 최서단 진도와 남해안 동쪽 거제도를 거쳐 여수로 집결하는 일정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제10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고, 한국 경제도약을 위한 세계적인 빅 이벤트인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4일 진도와 거제로 나뉘어 집결해 미리 마련된 현지프로그램에 따라 관광한 뒤 5일 여수에 집결해 '해양'을 주제로 미래의 국가비전을 함께 이야기하는 국민 화합의 장을 열었다.

먼저 진도에 모인 참가자들은 운림산방, 강계 조개잡이 등 진도읍내 관광을 하고 진도향토문화예술회관에서 진도군립예술단의 강강술래, 진도씻김굿, 남도들노래, 진도아리랑, 진도북춤 등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한편 거제로 집결한 참가자들은 청마 유치환 시인 생가 답사, 2만평 규모의 야생화 농원과 몽돌 해변, 어촌민속전시관, 이순신 장군의 옥포대첩기념공원 등을 둘러 보고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향토연극공연을 관람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에 참여하였다. 두 지역의 참가자들은 5일 동서화합을 의미하는 뜻으로 여수에 모여 전국해양스포츠제전과 함께 MBC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축하쇼'를 관람하는 등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번 행사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관광지 요금할인, 향토특산물 제공 등과 함께 참가자들에게 주유권을 나누어주기도 했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사에서 요금할인, 한국철도공사의 남해안 찾아가기 상품 등을 마련하고 자가운전을 원하지 않는 참가자들을 위해 버스여행상품 등을 준비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人間**

이번 행사를 위한 후원업체는 다음과 같다.



1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모습 2,6여수축제현장무대 3여수 화합의 축제현장에 모인 참가자들 4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음악회 5제15회 해양스포츠제전 7여수 - 이순신 장군이 진해루 터에 세운 75칸의 대규모 객사로 현존하는 국내 최대 단층 목조건물 8여수 -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오동도는 768m 방파제로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운 섬이다 9거제시 남부면 여치몽돌해변을 따라 명사해수욕장으로 가는 3.5km 구간은 거제의 해안변중 가장 경관이 빼어난 곳으로 대소병대도 등 남해안 다대도 섬들의 군상을 육지에서 조망할 수 있다 10진도 해안도로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세방낙조전망대에서 내려다 보는 다도해의 경관

명확한 목표가 분명한 결과를 낳는다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얼마 전 인기절정에 있던 영화배우가 젊은 나이에 자살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안겨 주었다. 왜 그랬을까. 심리학자와 정신분석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놓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표관리에 이상이 있었다는 점이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기에 단기적인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장기적인 목표를 간과했다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이 성공을 원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다. 더욱이 자신이 성공했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의 비율은 점점 줄어든다. 남들이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은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성공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LMI리더십의 설립자인 미국의 폴 마이어 회장은 성공을 "자신의 가치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를 점진적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이다."고 명쾌하게 정의한다. 여기서 성공의 핵심요인이 목표설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목표는 자신의 것이어야 하고 가치가 있어야 한다. 목표가 부모나 상사의 것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리더십에서 왜 목표가 중요한지는 자명해진다. 이는 사명선언서가 중요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을 깨달으면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확실해진다. 달려갈 방향을 알고 달려가는 사람과 무조건 달려가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법이다.

성공의 핵심요인은 목표설정

필자는 기업체 임원, 목회자, 교수, 언론인 등 각 분야의 인재들에게 리더십을 교육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모기업체의 P사장은 "내 삶을 돌아보면 목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어렵פות하게 목표를 정하고 살아왔을 뿐이다. 좀더 일찍 목표의 중요성을 알았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내 부하직원과 자녀들에게는 목표관리의 중요성을 미리서 일깨워주고 싶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다. 하기가 필자 자신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싶다.

목표관리는 훈련이다. 목표를 정하는 데도 요령이 있다. 목표의 유형은 대상과 기간과 형태에 따라 개인목표와 조직목표, 단기목표와 장기목표, 유형목표와 무형목표로 나누어진다. 이 여섯 가지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목표란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효과가 없다. 글로 써야 한다. 종이나 컴퓨터 좌판 위에서 생각할 때 목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적자생존'의 의미를 아는가.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뜻이다. 목표관리는 적자생존이 필수다. 목표를 정하고 나면 목표설정표를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해 보자.

첫째, 목표는 SMART해야 한다. 목표는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할 수 있고(measurable), 달성 가능하고(attainable), 현실적이고(realistic), 만져볼 수 있어야(tangible)한다. 이를 영문 첫 글자를 따서 SMART원칙이라고 한다. 애매한 목표는 애매한 결과를 가져온다. '신체단련'이란 목표와 '매일 아침 6시에 30분씩 조깅을 한다'는 목표를 비교해 보자. 어느 목표가 달성가능성이 높겠는지.

둘째, 달성시한이 있어야 한다. 단기든 장기든 달성시점을 정해야 주어진 목표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 농구선수를 보라. 막판 종료 3분을 남겨 놓으면 얼마나 최선을 다해 뛰는가. 이때 성패가 뒤바뀌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으리라. 자신이든 부하에게든 목표와 최종시점을 정하고 점검해 보자.

셋째, 돌아올 보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동기유발이 생긴다.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잘하든 못하든 보상이 똑같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 결국 무너진 것이다. 돌아올 보상을 명확하게 알고 생생하게 상상하면 동기부여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넷째, 장애요인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목표달성의 지름길인 장애요인을 볼 줄 아는 능력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지만 개혁이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왜 그런가. 바로 높은 목표만 세웠지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보지 못하거나 과소평가했기 때문이

다. 장애요인을 냉철하게 볼 수 있으면 목표는 때가 되면 달성 될 수 있다.

다섯째, 장애요인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그 자체가 목표가 된다. 장애요인을 문제로 보지 말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자. 발명왕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는 2만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실패로 간주하지 않고 거쳐야 할 과정으로 생각했다.

여섯째, 실천단계를 기록해야 한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천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실천단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행동지침이 제시되어야 목표는 생명력이 생긴다. 실천단계 없는 목표는 죽은 고기나 마찬가지로. 실천단계를 체계적으로 세우면 달성시점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목표는 없을 것이다.

일곱째, 다짐이 필요하다.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으로 흐르기 쉽다. 두려움, 근심, 걱정이 우리를 조용하게 놓아두지 않는다. 이 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날마다 향상되고 있다." 등 긍정적인 말로 자신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아닐 수 없다.

여덟째, 시각화를 해야 한다. 자신의 목표를 축약해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글이나 그림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거나 방에 붙여놓는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 목표를 상징할 수 있는 사진, 감동적인 글을 책상 앞이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속도가 붙게 된다.

이런 과정을 따라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면 목표관리는 어려울 게 없다. 쉬지 않고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다. 성공이란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가.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비교하면서 목표를 정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명확한 목표설정으로 자신과 구성원들에게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키자.** 人間



월간 디플로머시 임덕규 회장 인도 Manmohan Singh 수상 예방

싱 수상

"한-인간 2008년까지 100억불 교역 확대키로"

임덕규 월간 디플로머시 회장(한·인도친선협회장)은 1964년부터 한국-인도친선의 교량역할을 한 업적을 인정받아 인도정부의 초청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6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동안 임 회장은 만모한 싱(Manmohan Singh)수상을 예방하여 직접 단독회견을 가졌다. 최근 세계경제계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성장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임 회장과 인도 싱 수상과의 단독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다.

- 편집자 주

임 :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인도의 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오(Narashimha Rao) 전 수상을 1977년 외무장관시절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작년에 수상께서 당선되자 수상을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 하셨습니다.

싱 : 감사합니다. 라오 전 수상은 인도의 위대한 정치인 중 한 분이십니다. 저도 그분의 영향으로 정치에 입문했죠. 그는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고 정치인이자 학자이셨습니다.

임 : 라오 수상께서 지난 1993년에 방한하셨을 때 저는 한국의 기업인들에게 이제는 인도로 눈을 돌릴 때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기업인들은 '가난한 인도만을 떠올리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인도 전체 인구의 약 30%가 이미 중산층이다. 이는 유럽 전체인구와 맞먹는 인구로서 거대한 시장이다. 이제는 인도로 눈을 돌려야할 시기다."라고 설득했죠.

싱 : 한국기업들은 인도에서 능률적인 기업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인도의 기술, 자동차 내구소비재 분야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준 한국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하셨을 때, 우리는 향후 2008년까지 최소 무역교역 규모를 100억불(미화)까지 늘리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임 : 인도에 대한 수상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싱 : 인도는 개발도상국입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빈곤, 무지 그리고 질병을 추방하는 것이고, 우리국민의 창조성과 기업정신의 무한한 잠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어떻게 하면 전세계에 대하여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국가의 틀 안에서 경제적·사회적 목표를 이룩해 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의 모든 국가가 언젠가는 이런 모범사례들을 열심히 배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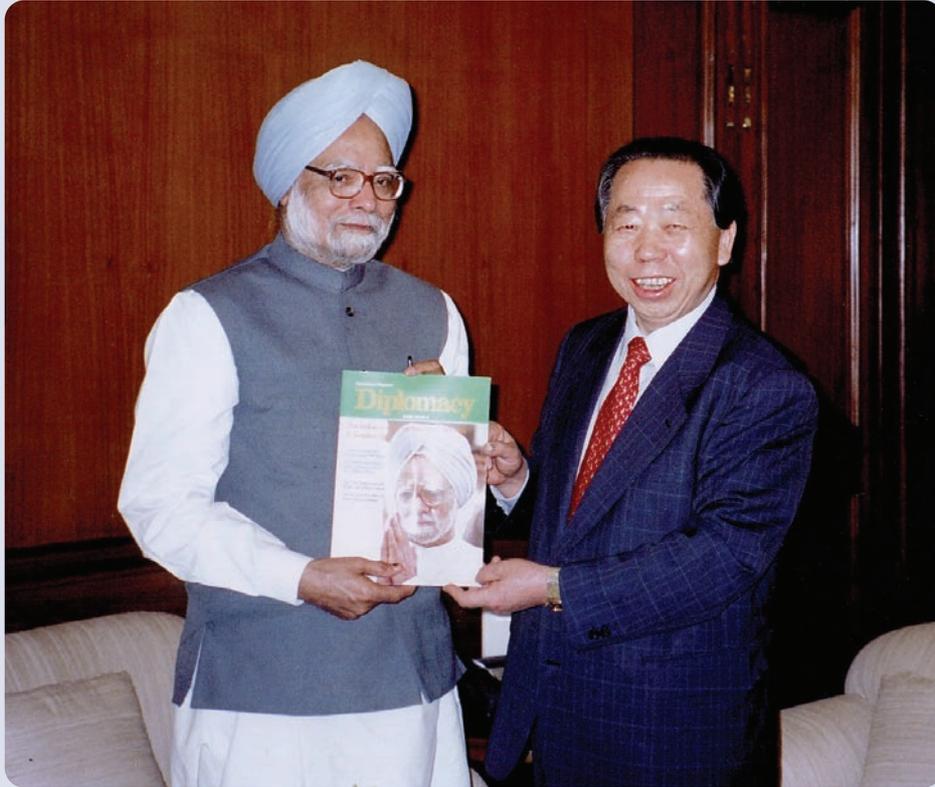
임 : FTA를 포함한 한국과 인도의 경제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싱 :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10월에 인도를 방문하셨을 때 우리는 좀 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경제와 무역분야에서 지속적인 정부대화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간의 경제 무역분야의 협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공동연구그룹(Joint Study Group)을 결성했어요. 최근 들어 양국간의 무역과 투자량이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두 나라 사이의 무한한 잠재력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새로운 시너지 창출과 함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야 합니다.

임 :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인도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싱 : 인도는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있는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입니다. 또한 다양한 공동사회 속에서 오랜 전통의 평화공존과 공생관계를 가진 다종교, 다인종 그리고 다언어 사회입니다. 테러와 편협이 세계를 위협하는 요즘 인도는 다원화사회가 어떻게 체계화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죠. 인도의 외교정책은 국가간의 우호증진과 신뢰의 도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국가들과 평화, 우

호, 협력 그리고 상호 신뢰의 구축을 위해 전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산적해있는 모든 미해결 문제들은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도경제는 매년 5~6%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죠. 인도는 거대한 시장, 천연자원, 숙련된 고급 인적자원 등으로 인해 이미 전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투자대상국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두 번째로 큰 무역파트너입니다. 두 나라 정부의 지속된 노력으로 상호신뢰와 이해가 어느 때보다 깊어졌으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고위급 회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미해결 문제들을 의도적으로 다루는 한편 두 나라 사이의 공통성을 넓히고 더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개척해나가는 성숙한 관계에 이르렀어요.

임 :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싱 : 인도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적인 핵문제 해결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인도정부는 최근 북한의 6자회담 참여의 무기한 연기발표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정부의 입장은 관련 해당 국가들과의 대화와 협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합니다.

임 :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시오.

싱 : 인도는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지난 2003년 4월 우리정부는 파키스탄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 이후 두 나라 관계는 현저한 진전이 있었어요. 최근 무샤라프(Musharraf) 파키스탄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우리는 우호와 협력의 정신 하에 양국간의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의 긍정적인 계기가 된 2004년 1월 6일 공동 성명서에서 구체화된 약속을 이행하면서 테러와 폭력으로부터의 안보와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 :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죠.

싱 : 중국과의 관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제협력이 급속도로 발전했죠. 중국은 이미

미국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전략적 파트너십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원론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서 두 나라는 기본가치를 함께 나눕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두 나라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및 테러 등에 맞서 싸우는데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또한 두 나라간의 방위협력은 성숙되어 가고 있고, 두 나라 군(軍)은 최근 쓰나미 참사 이후로 구원물자를 제공하는데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인도의 가장 중요한 투자국이며 가장 큰 무역대상국가입니다.

임 : 21세기 UN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시오.

싱 : 인도는 UN의 창설회원으로서 UN헌장에 명시된 목적과 원칙을 충실히 이행해왔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국경이 불확실한 글로벌시대에 UN은 전 인류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 인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이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창설 이래 UN의 활동영역은 크게 확장된 데 비해 정치와 안보에 관련된 체제들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과 확대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가 21세기에 대한 도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비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人間**

임덕규 회장

1936년 생 / 동국대 졸업 / 제11대 국회의원 / 한·인도친선협회 회장 / 세계국제법협회 평생부회장 / 동국대 법과대 겸임교수

만모한 싱 수상

1932년 생 / 옥스퍼드대 졸업 / 인도 중앙은행 총재 / 인도 재무장관 / 2004년 총리 선출

회원&연구원 소식

■ 회원소식

• **웅진그룹(회장 윤석금)**은 6월 14일 서울대(총장 정운찬)와 산학협



동 연구를 위한 '웅진R&D센터 설립 약정체결' 조인식을 갖고, 서울대에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산학연구비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웅진코웨이는 향후 15년간 산학연구비 등 총 26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조인식 행사에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정운찬 서울대 총장, 박용선 웅진코웨이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웅진R&D센터를 건립할 서울대 연구공원은 국내 기업들과 서울대가 산학연계 연구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총 2만 3941평 부지에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 산학연계 연구단지로서 이미 SK, LG가 입주해 있다. 웅진코웨이는 연구공원 내 약 3000평 규모의 웅진R&D센터를 건립하고 센터가 완공되는 2007년부터 웅진코웨이 연구소를 통합, 이진해 환경기술분야 및 새로운 가전 아이템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 **김승규(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고영구 국정원장 후임으로 내정되었다. 김승규 국정원장 내정자는 현재의 법무장관직을 유지한 채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게 된다.

• **시민의 신문(이형모 대표이사)**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창간 12주년과 함께 지령 600호를 맞이하게 되어 지난 6월 8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 **한국블랜차드컨설팅(조천제 대표이사)**에서는 기업체의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과 성과향상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공개강좌를 준비하였다.

- 아 래 -

- 교육명 : 칭찬리더십 Whale Done! Workshop
- 일 시 : 7월 5일(화) 오전9시~오후6시
- 장 소 : 매일경제신문사 교육센터(지하1층)

• **삼립식품(김영덕 대표이사)**은 지난 6월 2일 공시를 통해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고 2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위해 7~8월경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직영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와 설비투자를 전개할 예정이다. 오는 2007년까

지 50억원을 투자해 제빵공장을 건설하고 크림빵, 미감식빵 등 대표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통해 2010년까지 연간 1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주)동신선박 에이전시와 동신선박**은 '동신선박 주식회사(Dongshin Maritime Agency CO., LTD)'로 한글상호를 변경하고 동신상선, 동신선박 강부부 대표이사 사장을 양사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 **김민원 전 삼호물산 사장**이 (주)에어팩의 대표이사로 새롭게 취임을 하였습니다.

■ 신규회원



이경우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무총장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 14층
- 전 화 : 02-754-2015
- 팩 스 : 02-754-2076
- 이메일 : kwlee1945@naver.com
- 전 미안마 대사로 활동하셨으며 귀국하셔서 재가입하셨습니다.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강부부 동신선박주식회사 회장**의 자녀결혼식이 지난 6월 9일(목) 호텔 리츠칼튼에서 있었습니다. (연락처 : 02-573-3992)

• **정철수 계양전기 전무**의 자녀 결혼식이 지난 6월 11일(토) 향군컨벤션홀에서 있었습니다. (연락처 : 02-545-4233)

• **이왕열 기네스리그룹 회장**의 장남 승용군의 결혼식이 지난 6월 18일(토)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있었습니다. (연락처 : 02-415-9393)

■ 소모임소식

• **인목회(회장 김정배 / 수성 사장)**에서는 6월 모임으로 급속한 노령화 시대에 대비, 선견지명으로 일찍이 실버산업에 관심을 갖고 인천과 포천에 노인 요양시설인 실버타운을 운영하여 사업화에 성공하신 장찬기 회장의 (북)인천실버타운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면서 상호 토론도 하고 뒷풀이로 바닷가에서 생선회도 즐기는 친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천까지 왕복 할 수 있는 버스를 제공해주신 장찬기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이종기업 3그룹(회장 황석희 / 법무법인 우현 상임고문)**에서는 7월 모임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3그룹 회원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정보와 친목을 나누는 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7월 모임은 관동실업 김석기 회장의 사옥에서 김 회장의 사업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를 위하여 참석 여부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7월 7일(목) 오후6시30분
- 장 소 : 관동실업(주) 사옥 (02-2671-5365)
- 참석여부 : 최석태 총무 (016-237-9550)

• **다락회(회장 전순표 / 세스코(주) 회장)**에서는 119회 정기모임과 골프모임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다락회가 좋은 모임이 되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녁모임

- 일 시 : 7월 5일(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서울클럽 남산룸 (장충동 tel.02-2238-6493)
- 연 사 : 세스코(주) 전순표 회장
- 주 제 : 3D업종을 첨단산업으로

- 골프모임 (희망회원에 한함)

- 일 시 : 7월 5일(화) 08시
- 장 소 : 이스트밸리CC (tel.031-760-3800~1)
- 참석여부 : 02-462-6323, 011-222-6323 우창욱 총무

• **YCF(회장 김상래 / (주)성도GL 사장)**에서는 6월 15일 골프모임으로 대명 비발디C.C에서 라운딩 후 골프를 함께 하지 못한 회원들과 함께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날 골프모임에 스폰을 해주신 흥승국 에버그린(주)사장님과 최혜영 클래스A 티칭골프협회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지중해클럽**에서는 2005년에도 테마와 문화가 있는 여행을 준비하였습니다. 지중해클럽 회원분이 아니시더라도 관심 있으신 회원이 계시면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해클럽의 여행은 올해로 4회째로 매회마다 참가하신 회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여행으로 이번 일정 또한 품격 높은 여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아 래 -

- 일 자 : 7월 9일 ~ 17일(8박 9일)
- 여 행 명 : 지중해클럽 포르투갈, 스페인 여행
- 예상경비 : 250만원 ~ 270만원 예정
- 여행지역 : 암스텔담 리스본(2) 파티마 꼬잉브라(1) 부르고스(1) 빌바오(2) 세고비아 마드리드(2) 기내(1) 인천
- 문 의 처 : (주) 씨앤씨투어닷컴 강명수 (02-7766-002)

■ 연구원소식

• 최창락 이사장 자랑스러운 중앙인상 수상

서울중앙고등학교 교우회(회장 백순지)가 제정해 시상하는 제18회 '자랑스러운 중앙인'에 본원 최창락 이사장이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중앙고 교우회는 '교우의 날'인 6월 11일 정기총회를 갖고 시상식을 가졌다. 한편故 김상기 전 교사도 함께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 본원에서는 **신규로 직원을 채용해 담당업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를 드립니다. 그 동안 경영자연구회를 위해 수고한 임성미 주임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으며, 민선아 대리가 회원님들을 위하여 경영자연구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업무변동이 있는 연구원 직원을 함께 소개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선아 대리

전 화 : 02-2203-3500(113)
담당업무 : 연구회 진행 및 홍보, 회원친선행사, 임원비서

· 노은조 사원

전 화 : 02-2203-3500(106)
담당업무 : 연회비, 연구회 참가비 관련 외 연구원 재경부 업무 담당

· 서봉석 사원

전 화 : 02-2203-3500(105)
담당업무 : 지방자치 교육프로그램 진행, 교육시장 조사연구 외 기타 교육업무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 | | |
|------------|----------|----------|
| 월간 골프가이드 | 강민지 대표 | (7월 1일) |
| (주)혁신정보시스템 | 신덕균 사장 | (7월 1일) |
| 일양약품(주) | 정형식 명예회장 | (7월 1일) |
| (주)반포텍 | 최계순 사장 | (7월 1일) |
| (주)유창 | 차영준 부사장 | (7월 4일) |
| 삼보주단 | 윤건우 사장 | (7월 5일) |
| (주)다비육종 | 윤희진 사장 | (7월 5일) |
| 우드뱅크 | 전창윤 회장 | (7월 5일) |
| (주)태창플랜트 | 송언기 회장 | (7월 7일) |
| 교보증권(주) | 송 종 이사 | (7월 7일) |
| (주)서울문화사 | 심상기 회장 | (7월 7일) |
| 한국경영자총협회 | 최민형 상무 | (7월 15일) |
| KCTC | 신태범 회장 | (7월 20일) |
| (주)에어랩 | 황진수 대표이사 | (7월 21일) |
| 일우선박(주) | 서정권 회장 | (7월 27일) |

회원&연구원 소식



한국엘엠아이(주) 소식

■ 지자체소식

•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개설



강원도 양양군(군수 이진호) 주최, 본원 주관으로 21세기 새천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평생교육의 장으로 군민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양양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를 지난 5월 13일(금) 개설하였습니다. 양양 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린 개강식은 양정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을 초빙하여 "가정의 행복을 가꾸는 지혜"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향후 월 2회 정기적으로 아카데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동해아카데미」 개설



강원도 동해시(시장 김진동) 주최, 본원 주관으로 공직자와 주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동해아카데미」가 개설되었습니다. 6월 17일(금) 오후 3시, 동해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강식에는 김철호 명성그룹 회장의 "레저·관광산업과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주제강연이 열렸으며 공직자, 시민, 유관기관 임직원 등 약 300여명이 참여하여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향후 첨단지식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아카데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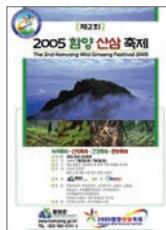
• 제2회 옴부즈만대상

장성군, 대전 서구청, 하동군 수상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선 우수기관을 선정, 수상하기 위해 서울신문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옴부즈만대상 시상식이 6월 28일(화)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 시상식에서 대상(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장성군(군수 김홍식)은 본원과 함께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지자체로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통해 군민들의 평생학습의 장을 10년 동안 마련해오고 있다. 그밖에 본원과 함께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대전 서구청(구청장 가기산)이 국무총리 표창을, 경남 하동군(군수 조유행)이 옴부즈만상을 수상하였다.

• 2005 함양산삼축제

세계적인 산삼 재배지인 함양군(군수 천사령)에서는 7월 1일(금)~3일(일)까지 "역사의 함양에서 문화의 함양으로"라는 슬로건으로 '2005 함양산삼축제'를 개최한다. (주)네오바이오(회장 안헌식)가 주관하는 이 축제는 함양군이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리적 여건 속에서 농업혁명의 위상을 드높이고 녹색관광의 메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일메카트로닉스(주)(대표 이운경) 임원 리더십과정 개강

지난 6월 23일(목) 수료한 (주)성도GL 임직원 리더십 교육의 성과에 힘입어 국일메카트로닉스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일메카트로닉스는 1989년에 설립된 이래 국내외 전기전자 및 자동차 관련업체에 다양한 정밀부품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임원진 리더십 개발을 통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과 경영혁신으로 국내 측정기분야의 선두에 선 국일메카트로닉스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봅니다.

• 숙명리더십개발원 교수진 리더십과정 개강

'2020년까지 대한민국 지도자의 10%를 배출한다'는 사명을 갖고 설립된 숙명리더십개발원의 교수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전문가를 위한 퍼스널 리더십" 과정이 6월 29일(수)부터 총 16주간 진행됩니다. 교육개혁 추진을 선도해가는 숙명여대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교수님들의 퍼스널 리더십 개발을 통해 휴머니즘을 실현하는 세계 최상의 명문여대라는 비전을 실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주)호텔롯데(대표 장경작) 임원 리더십과정 개강

연구원의 법인회원인 호텔롯데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ffective Personal Leadership)" 과정이 7월 7일(목)부터 총 16주간 진행됩니다. 내면적 자질 개발로 개인은 물론 조직의 성과 향상을 돕고 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줄 이번 과정을 통하여, "사랑, 자유, 풍요의 꿈을 실현한다"는 기업의 이념을 실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명동지사 BIG DREAM & SUCCESS 제21차 정기수료자 모임

- 주 제 : 이준구 Global Leadership
- 연 사 : 이준구 미 대통령 아·태 정책 자문위원, 국제 10021클럽 총재
- 일 시 : 7월 11일(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매일경제신문 본사 제1교육장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한국엘엠아이(주)

(T) 2202-8700 (F) 445-2086 (H) www.imikorea.com

' 2005년 회원친선 골프행사 '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 기간 주춤했던 인간개발연구원 골프친선행사를 새롭게 준비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탁 트인 필드, 페어웨이를 가르는 굵직한 샷, 홀에 볼이 들어가는 경쾌한 소리 상상만 해도 즐거운 골프의 맛과 회원들과 땀을 흘리며 선의의 경쟁과 친목도모는 물론 경영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함께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골프친선행사에서는 한국 국적 최초美 LPGA Class A 멤버로 등록되어 7년여간 미국 최고 티칭 프로로 활동하면서 조선일보에 '신개념골프', '맞춤골프', '내추럴골프', '기본으로 돌아가자' 등의 칼럼을 연재하였고 새로운 골프세계에 대한 여러 강의와 티칭 외에도 경희대 체육대학 객원교수, 연세대 최고위과정 강사, 고위여성 지도자과정 강사로도 맹활약 중인 최혜영 프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상세내용을 안내드리오니 부부가 함께 동반하셔서 모처럼 즐거운 행사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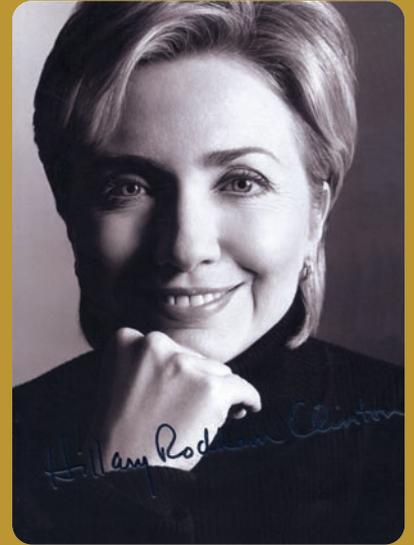
안 내

- **행 사 명** '최혜영 프로와 함께하는 인간개발연구원 골프포럼 라운드모임'
- **일 시** 7월 14일 (목) 1시 30분부터 Tee off
- **장 소** 센추리 21 C.C(강원도문막) TEL. 033) 733 - 1000
- **참가자격** 인간개발연구원 회원(부부동반 가능) 중 일반 아마추어
- **참가인원** 40팀 160명
- **접 수 비** 255,000원
(그린피, 캐디피, 카트피, 저녁만찬 포함 - 그늘집은 개인 부담)
- **경기운영** 18홀 스트로크 플레이
- **이 벤 트**
최혜영프로의 티잉그라운드 One Point Lesson, 문제의 샷 당장 퇴치법 강의
민병철 소장 골프 Fitness 강의, 시상식
- **참가상품** 코비스 티세트, 모자, 골프 볼, 썬크림 등
- **식 순**
1시30분 Tee off (약 5시간 소요)
6시30분 휴식 (샤워 등)
7시 만찬 - 조별 지정좌석에 착석
최혜영 프로 강연 외
8시 시상식 - 시상품 수여 및 협찬사 소개 후 폐회
- **시상품**
등위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 남녀 1개씩, 골프백 2세트(미사일골프)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 남녀 1개씩(MFS),
'Ten-under' 퍼터 5개(서울 채널(주))
퍼터 2개, 골프백1개(청호 골프), 프린터 2대(HP)
50만원 가구 상품권(Azone가구) 등
- 등위 외 대명콘도 2박 3일 숙박권, 15만원 상당 미용 상품권,
까사리빙 정기 구독권
- **참가신청 마감 및 문의**
7월 8일(금) / 인간개발연구원 회원부 02-2203-3500
전종두 031-782-0295

힐러리 상원의원과 함께하는 밀레니엄 리더십포럼

격동하는 세계질서, 아시아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최근 세계는 인간배아 복제, 유비쿼터스, 중등문제, 환율문제 등 새로운 이슈와 사건들 속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기업의 변화와 혁신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인간개발연구원은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과 최근 변화의 트렌드를 읽고 한국기업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005 밀레니엄 리더십포럼』을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차기 미국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힐러리 상원의원을 초청하여 21세기 세계 평화질서 유지를 위한 미국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한·미, 북·미 관계에 대해 강연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며 일본에서는 Sadako Ogata 前 UN 난민 고등판관관·UN대학 교수, 하코시마 신이치(箱島信一) 아시아신문 사장을, 중국에서는 우이(吳儀)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함께 모시고 각국의 의견을 대표하여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중입니다.

이번 행사가 부득이하게 더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참가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주에서 서울로 장소를 옮겨서 개최하게 되었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프로그램이 확정되는대로 7월초에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의 CEO와 임원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많은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 **일 정** 2005년 8월 말경
- **장 소** 웨라톤워커히호텔
- **대 상** 기업, 단체의 CEO 및 임원 외
- **문 의** 02-2203-3500

Global Koreans Network를 위한 남미 시찰단

-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



최근 세계경제의 화두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이며 그들을 빼고 세계경제를 논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거대한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인도는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리상으로 가깝고 사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국과 인도에 주목한 반면에 브라질 등 남미는 우리 기업과의 연계가 그만큼 적었습니다. 이에 본원은 풍부한 자원과 문화로 무한한 성장가능성이 감춰진 남미지역의 교포 기업인과의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4개국의 최근 발전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는 [남미시찰단]에 관심 있으신 회원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 **일 정** : 2005년 9월 28일 ~ 10월 9일 (11박12일)
- ♣ **참 가 비** : 5,990,000(1인당)
- ♣ **포함내역** : 왕복항공, HOTEL(2인1실 특급), 식사, 차량, 입장료, 현지가이드, 1억여행자보험, 관광진흥기금, 전쟁보상보험료, 인천공항세, 미국비자 FEE, 현지공항세
- ♣ **비 자** : 미국 TRANSFER 할 경우 미국 비자 필요 / 여권 : 출발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CITY | ITINERARY 행사일정 |
|---|--|
| 아틀란타 멕시코-시티 상파울로 이과수 부에노스 아이레스 리 오 리 마 꾸스꼬 우루밤바 마츠티츄 꾸스꼬 리 마 L. A. 인 천 | 아틀란타 도착, 마야 최대의 문명 치첸이사로 이동, 91계단 피라밋, 전사의 신전, 희생의 샘, 1000개의 기둥 등 마야유적지 멕시코 시티 도착 중미 최대의 도시 국가 테오티와칸, 해의 피라밋, 달의 피라밋, 사자의 거리 등 마지막 고대 문명인 아즈텍문명 ▶ 멕시코 시티 지역 기업탐방 및 간담회 상파울로 도착, 이파랑가 공원, 독립기념탑 등 시내 관광 ▶ 상파울로 지역 기업탐방 및 간담회 상파울로 출발, 브라질편 이과수 폭포 아르헨티나편 이과수 (악마의 숨통) 폭포 삼국접경지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역 기업탐방 및 간담회 국회의사당, 탱고의 발상지 보카지구, 대통령궁, 레클레타 모지 등 시내관광, 부에노스 아이레스 출발 리오 도착, 코르코바도 언덕의 예수상, 슈가로프산 케이블카 등정후 리오 시내 경관 감상, H.STERN 보석박물관, 쌍콘하도, 이빠네마 해변 등 시내관광, 리마 도착 ▶ 리마 지역 교포기업인과의 교류 꾸스꼬 사사이와만, 켄코, 탐보마차이, 푸카푸카라 등 잉카유적지, 산토도밍고 성당 관광후 우루밤바로 이동 잃어버린 공중도시 마츠티츄 리마 대통령궁, 구시가지, 신시가지, 미라플로레스 지역, 황금 박물관 등 시내 관광 리마 - L.A. - 인천 도착 |



좋은 책을 읽고 상상력과 자기 확신력을 키우자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만 일 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질 것이다. 도전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어려울 것이다. 이기고 싶지만 힘들겠다고 생각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패배의식은 나를 이 세 상 밖으로 밀어낸다. 성공은 개인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 그 모두는 나의 마음상태에 달려 있다. 만일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렇다. 높은 곳에 오르려면 높은 곳을 생각해야 하고, 상을 받으려면 우선 나에게 대한 자신감부터 가져야 한다. 강하다고 해서 삶의 승리를 거두는 것도 아니요, 빠르다고 해서 삶의 승리를 거두는 것도 아니다. 결국에 가서 삶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스스로 승리하리라 믿는 사람이다.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황금율>을 아서 R. 펠이 개작해서 새로 내놓은 책에서 인용한 시이다. 자기암시를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삶의 높은 성취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시를 깊이 음미해 볼 것을 권한다.

상상력은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무형의 최고 인간자산이다. 인생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삶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적인 것으로 끌어낼 수 있다. 인류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가 상상력이라는 위대한 인간자산을 활용한 사람들이다.

격주간지 포브스가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명인사'로 선정한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 윈프리는 어마어마한 독서량을 자랑하는 책 읽는 여자라고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 강인선 기자가 6월 20일자 조선일보에 기사를 실었다. 필자가 언젠가 이 지면을 빌어 윈프리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지만 미국 사회에 흑인으로 태어난 윈프리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행을 극복하고 오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여자로서 21년째 토크쇼를 진행하며 미국인들을 울리고 웃겨온 토크쇼의 천재요, 제왕이다. 또한 영화배우, 잡지발행인, 기업인으로서 눈부신 신화를 이룬 사람이다.

무엇이 윈프리를 탁월한 상상력과 굳은 자신감의 철인으로 만들었을까. 성공한 사람에게는 다양한 성공신화가 따르겠지만 한마디로 보통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서량을 통해서 상상력과 자기확신을 쌓아온 결과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다. 윈프리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당신이 내일 아침,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깨어나고 싶으면 잠들기 전에 책을 펴 들고 단 세 페이지라도 읽어라."

아브라함 링컨은 40대 나이에 이르도록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비웃음을 받고 살았다. 그러나 실패와 시련을 겪으면서 자신의 마음과 두뇌에 잠들어 있던 잠재력 즉, 천재성을 일깨움으로써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는다는 말이 전해주고 있는 교훈은 건더내기 어려운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잠자고 있는 상상력과 자신감을 일깨우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2005년 밀레니엄 경영자포럼을 준비하면서 미국 민주당 힐러리 상원의원을 초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상상력을 키워 자신감을 강화함으로써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오는 중에 <성공의 황금율>에 나오는 자신감을 기르는 법칙에서 많은 힘을 얻었다. 그 법칙을 여기에 남겨 BETTER PEOPLE BETTER WORLD 독자 여러분과 함께 큰 교훈으로 가슴 깊이 간직하고 싶다.

첫째, 나에게서는 뚜렷한 인생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여 그것을 성취하고 말 것이다.

둘째, 나는 내 소망을 행동에 옮길 경우 그것이 물질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매일 30분씩 나의 미래 모습을 마음 속에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다.

셋째, 나는 어떤 소망을 끈기있게 간직한다면 언젠가는 성취방법이 생길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매일 10분씩 자기암시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시간을 갖겠다.

넷째, 목표를 종이 위에 적어두면 내가 나아갈 길이 더욱 뚜렷이 보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다섯째, 나는 신뢰와 정의에 바탕을 두지 않고는 어떠한 성공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행동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힘과 타인의 협력을 묶어 성공을 달성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남을 도울 것이고 그들도 나를 돕도록 리드할 것이다. 나는 부정적 태도를 피하기 위하여 미움이나 질투, 이기심, 비판적 태도를 버리고 주변 사람 모두에 대한 사랑과 화합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다. **人間**



쉬운 골프 클럽이 스윙을 도와주며 거리도 많이 가게 한다



최혜영 한국국적 최초 美 LPGA Class A Member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전법에 속는 드라이버 로프트

예전에는 일반 아마추어 골퍼가 10° 미만의 로프트를 가진 드라이버를 사용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9°, 8° 되는 로프트의 드라이버는 투어 프로들만이 컨트롤할 수 있는 클럽으로 생각해왔으나 요즘은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에서도 9.5°, 8.5°의 로프트를 가진 드라이버들이 자주 눈에 띈다. 10여년 전 드라이버 클럽을 만들어 돈을 번 캘러웨이라는 회사가 캘러웨이 드라이버를 만들 때 실제 로프트는 10°, 11° 이면서 클럽의 내용을 표기할 때는 9°, 10° 라고 하여 판매하였다. 이는 프로들이 사용하는 드라이버와 같은 수준의 것을 가지고도 공이 잘 뜨며 잘 맞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전법으로써 크게 성공하였다. 샤프트에 표기된 드라이버의 로프트보다는 실제 로프트가 조금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11°, 12° 라고 로프트를 표기한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아마추어 골퍼들이 거의 없다.

드라이버의 로프트가 많아서 공이 뜨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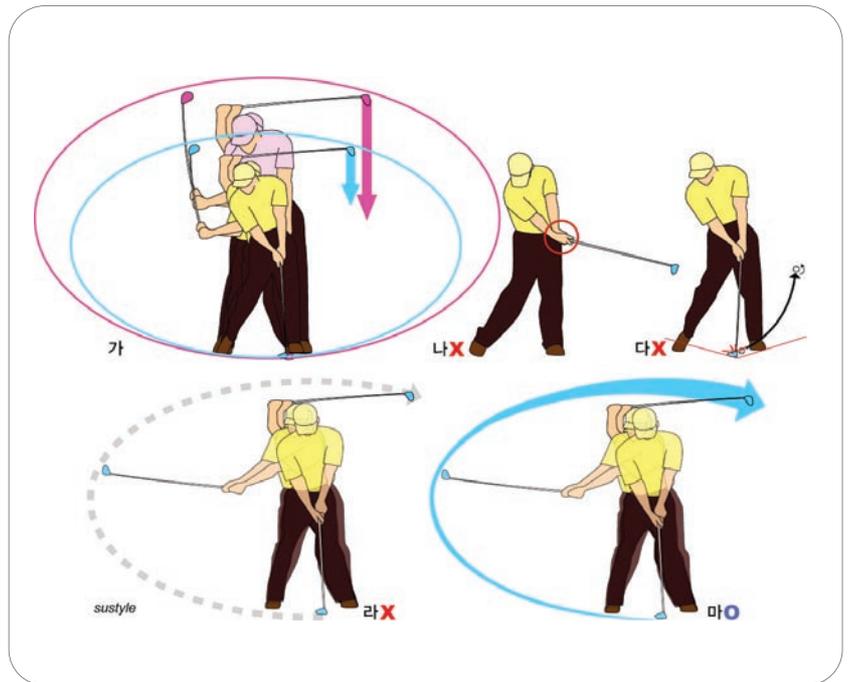
어쨌든, 왜 이렇게 사용하기 어려운 드라이버를 사용하느냐고 물으면 10°, 11° 는 공이 너무 많이 떠서 거리의 손실을 본다 고 아마추어들은 말한다. 물론 9° 로프트의 드라이버보다 11° 의 로프트를 가진 드라이버로 공을 치면 공의 탄도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10°, 11° 의 드라이버가 탄도가 높아서 거리의 손실을 본 아마추어 골퍼가 9°, 10° 의 드라이버로 바꾸어서 탄도가 낮아질 것을 기대하거나 거리가 더 나갈 꺼라 기대했다가 아직도 볼의 탄도나 거리에 실망이 되어 8°, 9° 의 드라이버로 다시 바꾸어 볼을 치게 됐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공이 아예 뜨지도 않는 현상, 또는 스카이 샷이라고 하는 처음부터 하늘로 솟는 샷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추어 골퍼들이 드라이버샷의 탄도가 높다라는 말은 드라이버의 뒷땅 샷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드라이버의 로프트가 많아서 탄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8°, 9° 의 로프트의 드라이버로 공을 띄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로프트가 없어 보이는 퍼터도 7°, 8° 의 로프트를 가진 클럽인데 공이 공중으로 잘 떠서 멀리 날아가게 해야 하는 드라이버를 퍼터와 같이 로프트가 없는 클럽으로 만들면 드라이버가 해야 할 고유의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로프트가 적은 드라이버는 정확성, 파워를 동시에 갖춘 투어 프로에게 적합

물론 타이거 우즈, 데이비스 러브Ⅲ, 비제이 싱, 필 미켈슨 등과 같이 팔이 길고 키가 아주 크고 힘이 좋은 서양의 투어 프로 골퍼들은 스윙을 하면서 클럽 헤드가 높이 올려져 헤드가 지면에 떨어지며 일으키는 위치에너지가 팔이 짧고 키가 작은 동양인들과는 스윙시 위치에너지의 양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그림 가> 그들의 파워로는 적은 로프트의 클럽을 가지고도 적당한 탄도를 가진 힘이 있는 볼을 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아마추어들의 체형이나 스윙 능력으로는 볼을 띄우기 힘들 뿐 아니라 띄우기 위해 클럽을 들어올리는, 골프 스윙에 가장 적이 되는 동작이 나오게 된다.<그림 나> 여기에 샤프트 강도가 강한 샤프트까지 되면 뒷땅 샷까지 되어 공이 처음부터 높이 뜨게 되는 스카이 샷<그림 다>을 만든다. 공이 뜬다고 하여 로프트가 적은 드라이버로 계속 바꾼다는 것은 우매한 일이며, 오히려 로프트가 충분히 되는 클럽으로 바꾸면 스윙이 교정되며 적당한 탄도와 파워가 실린 볼을 칠 수 있게 된다.

드라이버샷의 뒷땅을 없애려면

드라이버의 뒷땅 샷, 즉 너무 높게 뜨게 되는 샷은 백스윙을 너무 신중하게 하거나<그림 라>, 어드레스시 스윙 생각을 하며 오래 서있어 근육의 긴장을 초래할 때 만들어지는 샷이다. 백스윙을 가볍게 스피드를 내어 조금 빠르게 스윙하면 다운스윙의 스타트가 부드럽게 이루어지며 임팩트까지 파워를 끌고 가게 되어 처음부터 높이 뜨게 되는 샷 즉, 스카이 샷은 나오지 않게 된다. 이 때 백스윙의 스타트는 부드럽게 하며 점점 빠른 스피드로 백스윙 톱에 올려져야 한다.<그림



마) 그러면 10°, 11° 의 로프트를 가진 드라이버샷이 고유의 탄도보다 더 많이 뜨지 않는다. 오히려 적당한 탄도와 실수가 적은 샷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코치들이 아마추어에게 주는 클럽에 관한 메시지가 있다.

"More flexible, more loft, much easier, much better." 로프트가 좀 있고 샤프트가 소프트할수록 치기 쉽고 실수가 없으며 공이 잘 간다는 뜻이다. (人間)



최혜영 프로

한국 국적 최초 美 LPGA Class A Member / 美 lpga.com stats & news에 2004년 뉴스의 인물로 게재 / 美 LPGA Asian Member Advisor / 경희대 체육대학, 골프경영학과 객원교수, 최고위과정 교수 / 연세대 최고위과정 강사 / 조선일보, 매일경제 2001~2004년 골프 칼럼 연재 / 최혜영 골프 아카데미, CATA(Class A Teaching Association) 회장

유럽과 세계의 장래 - 프랑스 국민투표 결과를 보고

조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지난 5월 29일, 오랫동안 전 세계의 지대한 관심사였던 유럽연합(EU) 헌법에 대한 프랑스의 국민투표가 있었다. 결과는 예상한 대로였다. 프랑스 국민은 신 헌법을 비준하지 않았다.

헌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럽연합의 장래가 없어진 것은 물론 아니다. 경제공동체로서의 유럽은 앞으로도 존속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통합을 통해 유럽통합국(The United States of Europe)을 일구어낸다는 세계사적인 대업(大業)은 일단 좌절되었다.

EU를 만들어내자는 용도(雄圖)의 원조는 원래가 프랑스였다. 2차 대전 후 지금에 이르는 60년 동안, 갖가지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유럽통합의 꿈을 키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프랑스이다. 독일은 프랑스의 협력 없이는 이 대업의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번의 EU 헌법 초안도 프랑스의 전 대통령 지스카르 데스탱의 작품이었다. 그런 나라의 국민이 앞장서서 60년의 꿈을 접은 것이다.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프랑스의 정치가 포퓰리즘(Populism)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투표를 보면서 아차! 싶었다. 원래 유럽연합의 회원국을 단숨에 25개국으로 늘리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무리인 면이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들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고 장래도 낙관할 수 없다. 그래서 각국 국민은 EU보다는 그들의 기득권을 챙기는데 급급하게 됐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원칙 없는 대중주의(大衆主義)가 포퓰리즘이다. 프랑스 정치는

지금 좌파도 우파도 모두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져있다. 포퓰리즘의 의식에는 EU헌법 따위는 처음부터 설 땅이 없는 것이다.

프랑스 국민투표 '실패'에는 시라크 정부의 리더십 부족도 한 몫을 했다. 이 약체 정부는 포퓰리즘을 제압하면서 EU헌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할 리더십이 없었다. 지금 유럽 전체를 통해 그런 리더십을 가진 나라는 없다. 이것이 EU의 비극이다. 앞으로 그런 나라가 나타날 것인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나는 본다. 유럽나라들의 국민의식이 퇴영적(退 的)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를 생각해보자. 미국, 일본을 포함한 이른바 '선진권'에 속하는 나라들 사이에 세계전체를 이끌어 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나라가 과연 있는가. 우선 유일의 초대국 미국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다. 기대는 하지만 낙관할 수는 없다. 이 나라의 의식에도 당장의 쾌락(Instant gratification)을 지상시하는 포퓰리스트적인 색채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그런 국민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세계는 고사하고 국내의 경제문제조차 바로잡기 힘들 것이다. 작금의 미국경제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어떤가. 이 나라는 지금 우파의 포퓰리즘에 빠져들면서 주변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다. 민주주의, 권위주의, 후진국, 선진국을 막론하고 포퓰리즘이 판을 치고 있다.

화약고 같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로서는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다. (人間)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년연속(2003,2004)최우수상 수상
- 2004년 노동부주관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 2004년 감사원주관 자체감사 우수기관 선정
- 2005년 서울시장 기관표창
- 2005년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수상
- 2005년 제20회 '21세기대상' 수상(관리부문)



행복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드립니다!

인간미와 자연미가 어우러지는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SH공사는 새천년 생활공간 창조의 기업 이념과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공기업입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로 인간미, 자연미, 도시미, 현대미의 4가지 아름다움이 있는 아파트를 무주택서민에게 공급가격을 낮춰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노력해 21세기에 걸맞는 첨단 기기와 기술, 현대적인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H VILLE은 시민들에게 편안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려는 기업의 의지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시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형상을 전체적인 이미지로 상징화한 SH공사의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베지밀은 우유(牛乳)가 아닙니다. 콩을 원료로한 두유(豆乳) 입니다.



3년 연속(2003~2005년)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두유부문 1위 베지밀



콩과 사람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두유 전문가가 권하는-

닥터 베지밀

닥터 베지밀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칼슘, 셀레늄, 검은콩의 영양을
정성스럽게 담아낸 신개념의 프리미엄 두유입니다.

칼슘이 중요한
청소년 및 여성들을 위해

몸의 필수영양을 챙기는
청소년 및 성인들을 위해

당 섭취를 고려하는
성인들을 위해

고칼슘두유

닥터 베지밀
칼슘프로젝트

프리미엄두유
칼슘210mg 함유

두유, 멸균제품 200ml

셀레늄두유

닥터 베지밀
셀레늄프로젝트

프리미엄두유
셀레늄16.6μg

두유, 멸균제품 200ml

에덜트두유

닥터 베지밀
성인용

영양프로젝트
프리미엄두유

국산 검은콩 함유
두유, 멸균제품 200ml

고칼슘두유 닥터베지밀

-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슘이 210mg (일일권장량 대비 30%) 함유되어 있으며, 칼슘흡수율을 높여주는 비타민 D₃가 풍부합니다.
- 콩의 좋은 성분에 식이섬유 분말이 들어있어, 풍부한 맛과 향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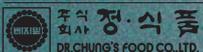
셀레늄두유 닥터베지밀

- 파라다이스 넋에 들어 있는 셀레늄을 담았습니다.
- 셀레늄은 현대인의 웰빙 식생활을 위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몸에 좋은 성분입니다.
- 검은쌀 추출물이 들어있어 조화로운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에덜트두유 닥터베지밀

- 성인들의 당 섭취를 고려하여 GI(Glycemic index, 당지수)를 2이하로 조정된 웰빙두유입니다.
- 일본의 콩 발효식품인 낫도(納豆)에서 추출한 비타민 K₂ 오일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본제품은 재정량제부가 고사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거 정당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상해 드립니다.



주문처

서울·경기 동부영업소(02)468-3233 ● 서울·경기 북부영업소(031)861-3782 ● 서울·경기 서부영업소(032)154-2315 ● 서울·경기 남부영업소(031)281-5535 ● 강원영업소(033)764-8801
충청영업소(042)623-8601 ● 전북영업소(063)214-5731 ● 전남영업소(062)941-5001 ● 경북영업소(053)659-3441 ● 경남영업소(055)231-8581 ● 부산영업소(051)204-8581

문의

고객 상담실 080-93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